

뉴스웨이 독자권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정기회의 회의록

○ 개요

- 일시: 2026년 6월 23일(화)
- 장소: 뉴스웨이 편집국장실
- 참석자: 정상국 위원장, 권오용 위원, 김여일 위원, 윤경호 위원(총 4명)

○ 안건

- 뉴스웨이 심층기획 시리즈 [In Depth] 운영현황 평가 및 향후 방향성 논의

○ 회의 자료

- 제목: 뉴스웨이 심층기획 시리즈 [In Depth] 운영현황 보고 및 의견수렴
- 자료 내용: 뉴스웨이가 올 상반기 선보인 심층기획 시리즈 [In Depth]의 운영 취지와 출고 기사 현황, 대표 기사 사례 등
- 대표 기사로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보상 방정식', 'K-성과급' 대전환의 서막> 기사를 제시. 해당 기사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후 성과급 체계 변화가 국내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글로벌 기업 보상 방식과의 차이, 향후 부작용 가능성 등을 다룬 사례였음.

○ 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 **(정상국 위원장)** [In Depth]는 뉴스웨이가 경제·산업 분야에서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획물임. 단순히 현안을 길게 설명하는 기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한 사안이 왜 중요한지와 그 배경, 산업적 파급효과까지 함께 보여주는 방향이 필요함.
한국 주력산업의 성장 과정을 현재 현안과 연결하는 시도도 의미가 있음. 제약·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산업이 성장해온 과정과 지금의 변화 흐름을 함께 짚으면 독자들이 산업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권오용 위원)** [In Depth]는 발행 빈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함. 열흘에 1건을 쓰더라도 더 심도 깊은 취재와 깊은 통찰력을 보여줘야 일반 기사와 차별화될 수 있음. 이미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라면 심층기획으로서 의미가 약함.
현장 취재, 전문가 분석, 데이터, 국내외 비교 사례 등을 통해 뉴스웨이만의 문제의식이 드러나야 함. 특히 삼성전자 성과급 사례처럼 한 기업의 이슈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안은 한국 산업 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불필요가 있음.
- **(윤경호 위원)** 현재의 한국 산업을 만든 과거의 스토리를 현재의 이슈와 엮어내는 방

식도 필요함.

광복 이후 한국 경제와 주요 기업이 성장해온 과정에는 책임의식, 사회공헌, 수익 배분, 기업가 정신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담겨 있음. 이를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지금의 산업 문제와 연결해 제시하면 [In Depth]의 활용도가 더 커질 수 있음.

다만 기업 성장사를 다룰 때 홍보성 기사처럼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성과뿐 아니라 실패와 한계, 사회적 책임, 노동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균형 잡힌 심층기획이 될 수 있음.

- (김여일 위원) 심층기획이라고 해서 독자가 읽기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해서는 안 됨. 모바일 환경에서는 기사 초반에 핵심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 복잡한 경제·산업 이슈일수록 핵심 쟁점, 배경, 데이터, 이해관계자 입장, 향후 전망을 독자가 따라가기 쉽게 배치하는 구성이 필요함.

타임라인, 핵심 수치, 비교표, 그래픽 등을 활용하면 심층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전체 요약

- 뉴스웨이의 심층기획 시리즈 [In Depth]는 경제·산업 이슈의 배경과 구조를 짚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음.
- 발행 빈도보다 완성도를 우선해야 하며, 열흘에 1건을 쓰더라도 깊은 취재와 통찰을 담아 일반 기사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한국 산업을 만든 과거의 성장 과정과 오늘의 산업 현안을 연결하는 방식은 뉴스웨이만의 차별적인 기획 방향이 될 수 있음.
- 향후 [In Depth]는 기업 홍보성 기사나 단순 해설 기사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감과 비판적 시각, 독자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배석 및 기록: 이윤구 기자)